월요광장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임 몽 택
미네르바 코칭앤컨설팅 대표,
전 광주대 경영학과 교수

하이테크 시대.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공장의 생산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고객의 마음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조차 자동화되었다. 정보는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지식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원활한 글로벌 연결을 가능케 하였고, AI는 단순히 작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 진단, 예측은 물론 인간 고유의 기능으로 여겨졌던 창조까지 넘보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듯 하이테크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빠르게 통합되어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을 재편하면서 속도, 편의성, 접근성 등에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첨단 기술은 직장인을 성과 지표를 향해 끊임없이 몰아붙였다. 작업자는 자동화로 인해 역할이 바뀌면서 일의 의미와 동기를 상실했으며,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메일, 메신저, SNS,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누구와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고립과 단절을 경험해야 했다, 급기야 온라인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알림과 메신저, 그리고 가상 상호작용은 스트레스, 무감각, 정신적 과부하로 이어지면서 극심한 디지털 피로를 가져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AI와 알고리즘이 때때로 맥락, 감정, 윤리의식도 없이 행동해 불공정하거나 비인간적 결과를 초래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 위주의 패러다임에 익숙한 우리 사회는 하이테크를 신중한 검토나 세심한 고려도 없이 단거리 경주하듯 받아들였고, 그 부작용 역시 컸다. 직장인들은 첨단 기술에 대한 압박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고립과 단절, 자동화에 따른 소외, 일에 대한 의미와 동기 상실, 끝없이 지속되는 실적에 대한 압박, 디지털 피로 등으로 번 아웃이 되어 수레바퀴 밑에 깔린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다. 누가, 어떻게 그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야 하는가?

하이터치란 기술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개인적인 연결, 공감, 신뢰, 정서적 참여를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하이테크가 속도, 효율성, 자동화에 중점을 둔다면 하이터치는 적극적 경청, 관계 구축, 배려와 이해, 의미 있는 경험 제공 등 인간적인 요소에 중점을 둔다.

하이터치 시대는 '기술'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이다. 성과보다 존재에 더 의미를 두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배려, 신뢰, 진정한 관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터치 시대에는 감성이 가치가 된다.

고객은 진정성 있고 피드백이 빠른 브랜드를 소중히 여기며 직원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문다. 이 시대에는 무엇을 생산하고, 파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다.

또한 하이터치 시대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관계는 업무의 부산물이 아니라 업무 그 자체이며 신뢰, 경청, 배려가 전략적 자산이 된다. 하이터치 시대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응하는 것이다. 기계가 더 효율적이고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수록 작업자는 공감, 신뢰, 따뜻함 등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사냥꾼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가서 온종일 달린 끝에 모든 부족원을 배불리 먹일 만큼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그들이 돌아오자 부족원들은 달려 나가 환호하고 축제에 쓰일 사슴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부족원 모두 배가 고팠고 먹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가 먼저 먹어야 할까? "보기 드문 지성을 가진 선지자"라 불리는 사이먼 시넥은 자신의 저서 '리더 디퍼런스'에서 "진정한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고 했다.

마지막에 먹는 사람. 하이터치 리더다. 하이터치 리더는 공감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과만큼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리더이다. 그는 더 깊이 경청하고, 더 깊이 성찰해, 부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배려한다. 지금은 하이터치 리더가 절실한 시대다. 기술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는 있지만 위로하고, 연결하고, 공감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따뜻함이기 때문이다.

수필의 향기

다시 살아내기

김 향 남
수필가

망설임 끝에 고무나무의 웃자란 가지를 잘라냈다. 너무 키만 커가는 게 위태로워 보여서였다. 잘린 가지에선 하얀 진액이 솟았다. 저도 생명임을 증명하듯 뚝뚝 피처럼 떨어졌다. 그 가지들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 위안 삼아 빈 화분에 심어두었다.

하지만 잘린 가지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물을 줄 때마다 의심이 앞섰다. 줄기는 시들지 않았고 잎사귀도 그대로였지만, 그 멈춤이 오히려 완강한 저항처럼 느껴졌다.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 적어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보이지는 않으나 필사적으로 살기를 도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안간힘이 더 깊은 침묵으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는 가지에 물을 주고 싹이 트길 기다린다는 건 생각보다 지루한 일이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게 아닐까? 살아 있으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괜한 희망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내 위안을 위한 욕심은 아닐까?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아침, 뭔가 쑥 커져 있는 게 느껴졌다. 잎과 잎 사이 작은 가시처럼 돋아 있던 부분이 여느 때와는 달라 보인 것이다. 그건 틀림없이 살아 있다는 신호였다. 마침내 뿌리를 내렸다는 뜻이었다. 멈춘 듯 보였으나 안에서는 치열한 생의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기다리지 못하고 뽑아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밋밋한 아침이 순식간에 벅찬 환희로 차올랐다. 보고 또 보고, 찍고 또 찍으며 흐뭇한 하루를 시작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죽었다고 밀쳐두었던 화분에서 보란 듯 싹이 돋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땡볕에 던져진 쇠비름이 잠깐 내린 비에도 불끈 기운을 차리던 것도 생생히 기억한다. 다육이는 무엇보다 쉽게 꺾이지만, 꺾인 자리에 다시 생을 이어갔다. 몇 해 전에 들여온 꽃기린 한 분은 지금 다섯으로 불어났다.

식물은 보통 씨앗으로 번식하지만, 떨어진 잎이나 가지를 통해서도 다시 생을 이어간다. 공중(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씨 뿌릴 일은 거의 없고, 간혹 가지를 자르거나 옮겨 심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 과정에 뜻밖의 기쁨이 있다. 씨 뿌릴 땅이 없다고, 비좁은 화분 속이라고 구태여 가리지 않고 더 크고 더 은밀하게 내리는 자연의 선물이다.

초목의 수형을 정돈하고 생장을 조절하며 새로운 개체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잘라내는 것이다. '잘라냄'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회복과 증식의 출발점이 된다. 끊어지고, 고립되고, 다시 뿌리내리는 시간. 분리와 단절의 아픔을 감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회복과 갱생의 기회다. 잿더미가 된 숲도 남은 뿌리와 줄기로 새로이 녹색의 숨결을 틔우지 않던가.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다. 관계의 단절, 믿음의 상실, 꿈의 좌절 같은 인생의 '잘림'은 견디기 힘들지만, 그 고통은 때때로 변화의 문턱이 된다. 줄기를 자른 자리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고, 그 자리에 다시 뿌리가 돋는다. 실연 후의 침묵, 이직 후의 공백, 상실 후의 고요 같은 시간은, 그 자체로 성장의 자궁이 된다.

대나무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는 데 수년을 보낸다고 한다. 겉으론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땅 아래에서는 조용하고도 치열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충분한 기다림 끝에야, 어느 날 문득 쑥 솟는다. 아무도 보지 않는 흙 속에서, 빛을 향한 의지를 잃지 않고 숨을 고르던 시간. 그 어둠을 견디고 나서야 대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곧고 푸르게 자란다.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유연함, 한 줄기 빛에도 반응하는 생의 민감함은 모두 그 오랜 침묵의 결과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고, 뚝 끊어놓고, 침묵 속에 머무르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내기 위한 시작이다. 단절은 소멸이 아니라 생의 또 다른 준비이고,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생명이 스스로를 다듬는 고요한 시간이다. 뿌리를 잃고도 다시 뿌리 내리는 식물들처럼, 인간도 상실과 고립의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를 다시 세워간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생을 지속하려는 묵묵한 의지다.

삶은 그렇게 다시 살아내는 방식으로 계속되는 것임을 저 새잎에서 또 배운다.

기 고

극한기후와 도시재난의 경고

송 창 영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2023년 광주시는 계측 이래 최장기간의 가뭄으로 30년 만에 제한급수를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그 극심한 가뭄은 곧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끝이 났고, 그 폭우는 광주와 한반도 전역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올해 여름, 광주는 다시 한 번 극한기후의 무서움을 실감해야 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광주와 전남에 쏟아진 비는 기상청 예보의 5배를 넘는 '괴물폭우'였다. 광주에서만 무려 904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되었고, 전남에서도 주택 386동이 물에 잠기며 가축 5만8천 마리가 폐사했다. 도심 곳곳의 상가와 주택, 도로가 흙탕물에 뒤덮여 상인들은 "삶이 멈춘 듯한 절망"을 토로했다. 좁은 하수관과 덮여진 빗물받이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배수 기능을 상실했고, 도심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의 위기다. 예상하지 못한 강도와 빈도로 찾아오는 재난이 도심을 뒤흔든다. 이번 광주의 수해는 우리가 쌓아온 도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산과 계곡이 많은 지형 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빼곡히 덮인 도시에서는 빗물이 흡수될 틈이 없어, 결국 좁은 하수관으로 밀려들며 침수를 더욱 키웠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도심 곳곳에 수목과 잔디가 살아 숨 쉬는 공원과 중소규모의 저류지, 빗물탱크 등을 더 많이 만들어 빗물이 고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점점 거세지는 국지성 폭우의 강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침수가 반복되는 저지대와 안전취약계층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재난 행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빠른 도시화 속에서 새로운 위험을 키워왔다. 도시라는 공간은 인구 밀집,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 복잡한 구조라는 특성 때문에 기후변화와 맞물려 언제든 재난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침수나 산사태에 그치지 않고 정전, 통신두절, 교통마비 등으로 도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복합재난'으로 비화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 속에서 짧은 기간에 지어진 대규모 건축물과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어, 더 이상 '안전'이라는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시민과 정보를 빠르고 정확히 공유하며,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 역시 노후한 건축물, 취약한 저지대, 밀집된 인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재난 대응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물리적 시설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위기관리 체계와 사회적 역량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재난의 예측과 대비, 대응과 복구의 전 과정에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책임을 나누는 '재난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 재난 거버넌스는 단순한 시민 동원이 아니라, 시민이 가진 경험과 지식, 관심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초나이카이'처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거나, 미국의 CERT처럼 시민 스스로가 훈련받고 서로를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은 본보기다.

광주에는 이미 7만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46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재난안전추진단'이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관리가 단순히 눈앞의 위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기초지자체와 공직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재난 행정과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 속에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과 매뉴얼을 정비하고 예방과 대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정부, 지자체, 전문가, 시민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협력하며,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주가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의 길이다.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과 지역사회, 그리고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社 說

폭우 이어 폭염, 지역민 일상회복부터 챙겨야

광주·전남지역에 역대급 폭우 피해에 이어 폭염까지 겹치면서 지역민들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광주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527.2㎜의 비가 쏟아졌고 광양 백운산에는 무려 602.5㎜의 폭우가 내렸다. 광주·전남에서는 실종자 3명이 발생했고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등 피해 신고도 2000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복구작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폭염이 들이닥쳤다. 20일 광주·전남 전역의 호우특보가 해제되자마자 해남과 완도 등 남해안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온은 연일 체감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재민들은 온열질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폭우 직후 찾아온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염병 확산 등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응의 무게도 다르다. 복구 현장에 투입된 수해 주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 장병들 역시 열사병과 탈수 증상 등 건강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는 피해현장에 복구 인력을 투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폭염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재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임시 대피소와 마을회관, 공공시설 등에 냉방이 가능한 쉼터를 마련하고 선풍기·냉풍기 같은 장비와 생수, 전해질 보충 음료 등을 신속히 비치해야 한다.

또 고령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간호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냉방 취약지 대상 순회 점검 등 세심한 행정도 요구된다. 수해 피해자를 위한 심리 회복 지원과 긴급 생계 복지 서비스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일단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행정력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다. 수해 복구와 폭염 대응의 모든 조치가 '지역민의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촘촘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 개헌 제안…국민 눈높이서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해 우리 정치의 숙원인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따라 국회는 물론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위에서의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5·18헌법 전문 수록' 언급은 광주·전남의 현안인 5·18 폄훼와 왜곡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도 개헌을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엔 여야 입장 차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개헌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처럼 찾아온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無等鼓

금강산

"누구의 주제런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 봉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민 옷깃 여미며/ 그 이름 다시 부를 우리 금강산/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지 몇몇 해/ 오늘에야 찾을 날 왔나 금강산은 부른다" 가곡 '그리운 금강산'은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겨레의 혼을 느끼게 하는 노래다. 남북통일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가곡으로 지난 1962년 한상억이 가사를 쓰고 최영섭이 곡을 썼다.

한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파리 본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와 세계자연보전연맹도 지난 5월 금강산 등재를 권고해 사실상 이번 통과 가능성을 밝게했다.

높이가 1683m에 달하는 금강산은 최고봉인 비로봉 외에도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내금강과 외금강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다소 경사가 완만한 데 비해 후자는 가파른 편이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풍광을 자랑한다.

금강산은 수많은 문학작품을 비롯해 한국화 등의 단골 소재로 차용됐으며 해외 문인들에게까지 명성이 알려졌다. 고려 문인 이곡은 금강산과 동해를 둘러보고 '동유기'(東遊記)를 썼으며,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를 '정선 필 금강전도'(국보)로 남겼다. 영국의 여행가이자 작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금강산에 대해 "세계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한다"고 상찬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올해로 17년이 됐다. 그동안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 기업들 시설까지 철거하는 등 일방적 조치를 감행해왔다. 이번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가 이에 앞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와 맞물려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궁극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 현지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